

곡성군 석곡면, '모두 모아 흑돼지 김장축제' 한마당 성료

석곡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우리가 돼야지' 팀 주관 월봉·능암·능과·흥지 등 4개 마을에 김장김치 전달

곡성군이 주최하고 석곡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와 '우리가 돼야지' 팀이 주관하는 '모두 모아 흑돼지 김장축제'가 지난 12월 17일 석곡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앞마당에서 열렸다. 축제를 기획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석곡면 주민공모사업이 있다. 주민공모사업은 2022년 한 해 동안 지원센터 내에서 진행되었던 도시재생사업의 코어 사업으로서 비로소 석곡면 주민들이 본 사업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제까지 진행된 도시재생사업이 석곡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면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치중되었다면, 주민공모사업에 도달하기 위한 2021 석곡면 도시재생대학, 2022 석곡면 도시재생대학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이제야 그 노력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행사 당일, 석곡면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찾은 이상철 곡성군수와 윤영규 곡성군의회 의장 및 의원들은 주민들과 함께 김장 체험에 참여하여 김장 김치를 만들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축제에 참여한 주민들과 석곡면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에게는 김장체험이 제공되었으

며, 참가자들이 손수 만든 김치를 담아갈 수 있도록 다회용기 반찬통도 함께 제공되었다. 김장 체험 이후에는 석곡면의 특산물이자 곡성군 오미로 선정된 석곡면 흑돼지로 만든 수육과 팻국을 제공해, 추운 날씨에도 이곳 센터까지 찾아온 참가자들에게 든든한 한상을 차려냈다. 직접 이 축제를 기획한 '우리가 돼야지' 팀은 이번 축제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모이지 못했던 석곡면 주민들을 '모두 모아' 보는 기회를 삼고 싶었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역 주민들과 축제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담근 총 300포기의 김장김치는 석곡면 도시재생사업에 해당하는 4개 마을(월봉, 능암, 능과, 흥지) 회관으로 전달되어 노년층 및 소외계층에게 나눠질 예정이다. 곡성=양혜영 기자



담양군,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기억박물관 문 열어

월산면 흥암마을 '앞바우뒤틀바우네' 전시관 12월 22일 개관

담양군문화재단(이사장 이병노)은 지역민의 일상 자원과 기억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마을 기억박물관 '앞바우뒤틀바우네' 오픈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을 기억박물관'은 담양 일상 기록 및 자원을 함께 공유하고 보존하기 위해 마을주민, 활동가, 문화기획자가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공

간 기획부터 전시 기획까지 함께 만들어가며 문화 거점 공간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이곳은 주민들에게 먼저 개관 되어 마을 사진 전시와 주민들이 직접 사용했던 농기구 및 생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일상 기록을 담아 낼 예정이다. 오픈식은 ▲오픈공연(흥암마을 박남식) ▲

전시관 소개 ▲전시관 진행경과 및 전시관 둘러보기 ▲소감나누기 ▲오픈 기념 동지축 나눔 순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12월 22일 월산면 흥암마을 '앞바우뒤틀바우네' 전시관에서 진행된다. 이에 참여 주민들은 "우리 손으로 전시관을 만들었다는 점이 뿌듯하다"며 "흥암마을이 체험마을로서 볼거리가 또 하나 생겨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출범...화순 발전 컨트롤타워

민선 8기 화순군 혁신과제 발굴의 중추적 자문기구 역할을 할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이 출범했다. 화순군은 지난 1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이하 혁신단) 위원 20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혁신단은 군의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각 분

야 전문가 20명을 위촉하고 ▲자치행정 ▲문화관광 ▲지역경제 ▲도시환경 ▲보건복지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했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혁신단은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 연구 수행, 군정 현안사항 자문 등 군정발전을 이끌어 갈 방침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구례군, 국가공인 치유농업사 합격자 첫 배출

'지리산과 하나되기' 강승호 대표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된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증 취득 시험에 구례군에서 국가공인 제1호 치유농업사가 배출됐다.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증에 합격한 강승호 '지리산과 하나되기' 대표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142시간의 교육을 이수, 농촌진흥청에서 시행

하는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강승호 대표는 "구례군은 지리산과 섬진강 등 생태자원, 국가 농업유산 자원인 산수유, 기타 야생화 등 다양한 치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민의 자연친화적인 삶과 건강,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나주시, 금성산 정상 상시개방 청신호...시민 염원 이뤄낸다

운병태 시장,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와 간담회 가져

나주시의 진산(鎭山)인 금성산 정상을 12만 나주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관·군 간 논의와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운병태 시장은 최근 시청사에서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관계자들과 만나 지난 달 이뤄진 공군 방공포대 이전에 따른 금성산 정상 상시개방을 공식 요청했다. 운병태 시장은 이 자리서 금성산 정상 상시개방에 대한 시민의 오랜 염원을 전달하며 2개 방안을 군에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산 정상 공군부대 안전을 통해 해당 부지를 금성산 등산로 개설, 관광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산 정상 공군부대가 그대로 주둔

할 경우 부대기능 유지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공간, 주변 부지를 나주시와 공동 활용하는 방안이다. 시는 해당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군부대와 협의의 통해 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등산로 개설, 전망대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운 시장은 제안 설명과 더불어 산 정상부 지뢰 제거 현황 및 안전성 확보 방안, 신무기체계 도입 관련, 타 지자체 개방 사례 및 관·군 간 협력 사항 등에 대한 관·군의 지속적인 협의를 강조했다. 운 시장은 "나주시민들에게 금성산은 단순 산이 아닌 정신적인 고향이자 수호산, 어머니의 품 같은 존재"라며 "과거 안보 논리에 국한



하기 보다는 이제는 시민들과의 상생을 가치로 금성산 정상 상시개방을 위해 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관계자는 "나주시민들의 산 정상 개방에 대한 염원을 잘 알고 있다"라며 "군에서도 접점을 찾아 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나주=송준표 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